

자본주의시대를 사는 크리스찬, 부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용상(기학연 실행위원,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1. 도입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은 사회 존립의 기초가 되며, 개인과 가정의 문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조차 그 존립과 그 운영에 있어서 재정운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개인차원에서도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크리스찬 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매일같이 부족한 돈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만 천만명이 넘을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돈 걱정을 하며 하루를 산다. 성경에서도 돈과 재물은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 언급한 문구는 각각 215개와 218개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에 돈과 재물, 청지기적 역할에 대한 언급은 2,084개에 이른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에서도 돈과 관련된 비유가 16개에 달할 정도로 성경과 예수님조차도 금전과 재정의 문제를 중요한 신앙의 소재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재물과 관련된 성경상의 수많은 기사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다만 청지기가 되라고 하실 뿐이다. 청지기의 본분은 본인에게 맡겨진 자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부르셨다.

여기서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가 부채의 문제이다. 그것이 곤핍에서 연유하던 투자목적에서 연유하던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부채를 보느냐의 문제이다. 성경에서는 빚은 지지도 말고 보증도 서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아가 성경에서는 빚(부채)은 공급의 결여,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터의 단절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경의 언급이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불가피하게 부채를 지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재생산 구조는 자본의 순환 없이는 그 근본이 작동할 수 없으며,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금융은 자본주의 사회생활의 일부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원리 차원에서 부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2. 성경이 말하는 부채와 현실 간의 괴리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13:8 전반부)” 이 말씀도 성경의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임에 틀림없다. 왜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는가. 부채에 관한 성경의 전반적인 관점은 빛이 죄는 아니지만 빛은 지지 말라고 하고 있다. 죄가 아님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부(wealth), 재물(riches), 돈(money), 빚(debt, burden)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면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영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판단의 일단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빛에 대한 관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빛은 우리를 종으로 구속한다

구약성경에서는 부채의 구속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잠22:7)” 이 말씀은 빚을 지게 되면 빌려준 자의 종처럼 예속되고, 빚이 많을수록 그 관계는 더욱 강화된다는 관점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은혜(편의)를 입었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정신적·영적으로 예속되고 또한 빚을 갚아야한다는 책임으로 인해 수입을 어떻게 써야할 지에 대한 선택적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한 관점이 있다. 즉,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성도간에는 자발적인 채권-채무의 관계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구속과 스스로 종이 되는 관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피값으로 사신바 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또 다른 관계로 인해 다른 것의 종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크리스찬이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여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부채를 지면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종이 된다는 논리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종종 부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단절로 언급되기도 한다

때때로 성경은 빛을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 은혜로 부터의 단절로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청지기 역할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빛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되어 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신28:1,2,12)”

반면에 빛을 지는 것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저주로 언급되기도 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신 28:15,43,44)"

이러한 관점에도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오늘날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부채를 동원하는, 소위 자발적 부채 동원의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부채를 동원하는 금융행위(financing)가 저주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성경은 빛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인 거부행위일수도 있다고 본다

투자목적의 부채 동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지게 되면, 우리는 이후에 그 빛을 갚을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가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4:13-15)"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행위로도 인식하고 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식, 인간적인 방식이 빛을 얻어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이다.

이 역시 의문은 남는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를 사는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전제로 하는 투자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 분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며 산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봄과 가을 사이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농부조차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고 오늘 투자행위를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자가 부채를 동원한 것이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자본주의시대를 사는 크리스찬, 부채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3.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의 부채에 대한 입장

현대를 사는 개인의 재정문제에 있어서 부채와 관련된 사항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민감한 문제에 속한다. 우리는 집을 장만할 때도 담보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용카드 사용은 일상 생활화되어 있다. 매입의 수입중에서 많은 부분이 담보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결제로 빠져나간 월급통장을 보며 “언제 빛 없이 살아가나”하는 푸념이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단상들이다. 크리스찬들이라고 예외일수 있을까?

전호에서 우리는 빛에 대한 성경적인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꾸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이 사라지면 ‘빛을 구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부실사태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막장에 몰렸던 신용불량자들이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리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리라.’한 잠언의 말씀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적 오명을 안고 실직을 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았으며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일지라도 빛을 갚기에도 버거웠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빛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적 입장에 서있는 구약에서조차 채권·채무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삶은 ‘빌

려주는 삶'이라는 것이며, 이는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과도 크게 상관없다. 결국 성경의 입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자족함은 소유의 크기가 아닌 개인의 신앙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빛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문제해결 방식으로 쉽게 빛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차단'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자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빛을 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빛을 갚기 전까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더 이상 내 것도 하나님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간에 최적의 투자기회가 오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없게 한다. 결국 빛은 기회상실의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차단이 될 수 있다.

“빛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가정한다.”는 말은 어떨까? 이는 빛을 내는 목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빛을 동원하는 경우 금액이 커지기 마련이며,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에는 항상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막연한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로 빛을 동원해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서 야고서4:13-15의 말씀은 적절한 적용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정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투자는 어떤가? 단지 부채를 동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채는 저주다.”라는 단선적인 판단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비약이라고 본다. 빛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신명기조차도 ‘빛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처지’의 궁색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의 단절로 보고 있지 빛을 내고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 잠언도 마찬가지로 ‘빛을 갚을 수 없는 처지의 상황’을 은혜의 단절로 보고 있으며 빛을 지는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은 비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은 신약에서는 더욱 명료하다. 예수님조차도 채권·채무관계를 경제활동의 일상적인 영역의 하나로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열 달란트’ 비유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도 대부업자의 사례와 채권·채무관계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관계로 등장한다. 특히 ‘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모두 100%의 수익을 획득했던 종들과는 달리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악한 종을 심히 꾸짖으시며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

으면 수익을 얻었으리라.” 했던 것도 현대에서처럼 예수님 당시에 금융관행과 투자를 통한 수익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동 비유에 등장한 3명의 종은 모두 오늘날의 채무자들이며 채권자인 주인은 달란트(deposit)에 대한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과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투자 및 금융 기회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한 종을 악하다고 꾸짖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신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조차도 채권·채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 자녀들은 예전에는 죄값으로 사단에 속해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바 되어 하나님의 권속으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자녀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결국 영적인 세계에도 죄값과 피값을 매개로 신분이 변화되는 채권·채무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채권·채무에 대한 구약의 관점이 이로 인해 발생한 종과 주인 간의 종속 및 억압관계를 피하기 위한 이상을 표방했다면, 예수님은 현실에 기반해 사고하고 판단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현실에 기반해 생각한다면 대출을 무조건 죄악시 하는 것은 교인들의 선택,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은혜의 폭에 상당한 제약을 두는 것이 될 수 있다. ‘열 달란트’ 비유의 보다 정확한 예수님의 경제학적 원리는 대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달란트)을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통해, 나아가 적절한 수익활동을 통해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실패한 악한 종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채를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원된 대출과 자금활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생존을 위한 필요를 위한 것이며, 둘째로는 투자활동을 통해 적절한 이익을 남겨 하나님나라를 위해 적절히 활용하라는 것이다. 부채를 동원하는 데에도 명확한 기준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존과 필요(needs)를 위한 부채 동원

이는 마땅히 정당화되어야 한다. 생존보다 더 큰 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경우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을 통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면, 빚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용서할 줄 모르는 중’의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탕감(용서)이 예수님의 채권·채무관계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웃의 필수적 필요에 대해 나눔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형통함 하에서 꾸어주는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찬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타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욕구(desire) 해결을 위한 소비성 부채 동원

이는 마땅히 피해야 할 행위이다. 이는 사라지는 돈이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돈이며 때로는 마귀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신형으로 바꾸기 위해 준비없이 빚을 내야한다면 현재의 차를 더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신차를 중고로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이 좋다. 새차가 항상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새차와 빚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미칠 미래의 현금흐름과 심리적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순간적 만족을 위해 신용카드를 쉽게 긁는 것이라면 이는 피해야 할 습관임에 분명하다.

소비성 부채는 “내 소득의 x% 범위내에서 해결될 수 있을 때 장만하겠다.”라든지, 신용카드로 미리 구입하기보다는 “자투리 돈을 저축해서 몇 개월 뒤에 구매하겠다.”라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소비 이후 후회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욕구가 변하거나 돈을 모으는 재미가 더 재미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목적의 부채 동원

여기에는 투자자 자신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과연 예정된 투자를 위해 얼마나 준비된 투자자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투자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수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의 출처와 내용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한다.

또한 나는 어떤 타입의 투자자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 나는 어느 정도의 손실기간을 감내할 수 있는 심리상태인지와 현금흐름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대출규모가 커서 이자 및 상환압박이 크거나 개인 성격상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스타일이라면 투자성과가 나오기까지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 가정내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대출이자 상환으로 인해 현재 생활수준 유지가 곤란할 수도 있다.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빚을 내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을 줄이거나 투자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투자를 통해 획득한 이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이다.

4. 크리스찬의 부채 동원 적정여부 검증 절차

부채 동원의 목적과 성격적 크리스찬의 삶 간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신명기의 “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이라는 말씀은 현재 자본주의사회를 사는 크리스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전제를 굳이 재정적인 부분과 접목시킨다면 크리스찬의 경제활동 스타일, 소비동기, 투자동기 등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디모데서의 경계를 적용한다면, 투자 목적의 부채동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심저를 들여다 보았을 때 내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다면 투자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이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구한 재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과는 괴리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단도 돈을 줄 수 있지만 그 결국은 영적, 육적 파멸이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라는 신앙적 확신이 들 때까지는 유혹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해 안전하다. 아무리 영적인 크리스천도 재물이 개입되면 스스로 속을 수 있다. 탐욕이 지배하면 이성과 영적 판단은 마비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셨을 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파리하게’로 쓰여진 본문은 영어성경으로는 ‘wasting disease’로 번역되어 있는데, 저희의 욕심에 따라 재물의 축복은 주셨을지라도 ‘영혼소모병’에 감염되어 결국에는 해골만 남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부채 동원에 대한 너무 보수적 성경해석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상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확실한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 더불어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리듯이 오늘날 우리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믿는다. 그것이 비록 부채를 동원한 것일지라도 너무 보수적인 성경해석으로 투자와 모험의 기회가 포기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차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인을 오해하고 맡겨 주신 달란

트를 땅에 묻어두고 버린 어리석은 3번째 종처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하나님의 형통 아래 있는 자들을 이유 없이 시기하고 저주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